순천 삼산초 "'찾아오는 매직쇼'로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전교생 39명·유치원생 8명 대상…'오감만족 힐링 매직쇼'

마술·변검·샌드아트·그림자·버블공연 등 흥미·재미 더해

"간접적인 직업군에 대한 체험까지 가능한 뜻깊은 시간"

순천 삼산초등학교(교장 안혜자)는 지난 5일에 '찾아오는 매직쇼'를 삼산초 두륜관에서 진행했다.

전교생 39명과 병설유치원생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연은 보통 도시에서만 관람할 수 있었던 마술쇼를 학교에서 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특히 '오감 만족 힐링 매직쇼'라는 주제 아래 마술, 변검, 샌드아트, 그림자, 버블 공연이 풍성하게 이뤄져 흥미와 재미를 더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서 학생들은 뜨거운 열기로 마술의 신기함에 함성을 지르며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다.

아이들이 마술을 직접 체험하며 마술사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었던 덕에 이번 행사는 간접적인 직업군에 대한 체험까지 가능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4학년 박귀남 학생은 "마술이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특히 상자 속의 물건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는 마술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나중에도 또 보고 싶어요."라고 공연을 본 소감을 말했다.

삼산초 안혜자 교장 선생님은 "큰 도시에 가야 볼 수 있었던 매직쇼를 찾아오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집중력, 창의력까지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삼산초등학교는 작은 학교의 특징을 살려 찾아오는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견문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위생·안전 합동 점검' 실시

오늘부터 16일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등 위해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가을 신학기를 맞아 상반기 점검 미실시 초·중·고 45교를 대상으로 7일부터 16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청 및 시·구청 등의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해 식재료 관리 및 급식실 위생 상태 등을 교차 점검한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지연된 만큼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및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코로나19로 부분 등교가 이뤄고 있는 올해는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와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며 "동부교육지원청은 점검을 강화해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장석웅 도교육감, 전남학부모회네트워크 경청올레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6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남 학부모회 네트워크 회원 22명과 만나 코로나19 속 대전환기를 맞은 전남교육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전남 학부모회 네트워크는 도내 22개 지역 학부모회 네트워크 대표로 구성됐다. 당초 지난 5월 총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 학교 학부모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이날 뒤늦게 첫모임을 갖게 됐다. 이날 전남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회장으로는 김선유 학부모(매성고등학교학부모회장)가 선출됐다.

장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남교육이 잘했던 점으로 △ 학교자율사업비 증액 △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보급 △ 고교무상교육 조기 시행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화해 조정 중심 학교장

전결 시행 △ 초등학교 1학년 과밀학급 해소 등을 들고 감사를 표했다.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 △ 방과후학교 강사 교육 △ 학부모에 대한 온라인 도구 활용 교육 △ 문해력·수해력 역량강화 교육 △ 학부모에게 진로진학 정보와 컨설팅 제공 등을 장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김정환 기자

화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관내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5일 춘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춘양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2020.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생활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여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안전예방 수칙을 준수한 상황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는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에게 성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과 연계하여 전문가에게 성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합한 교육이 되었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암교육청, 월출학부모회 협의회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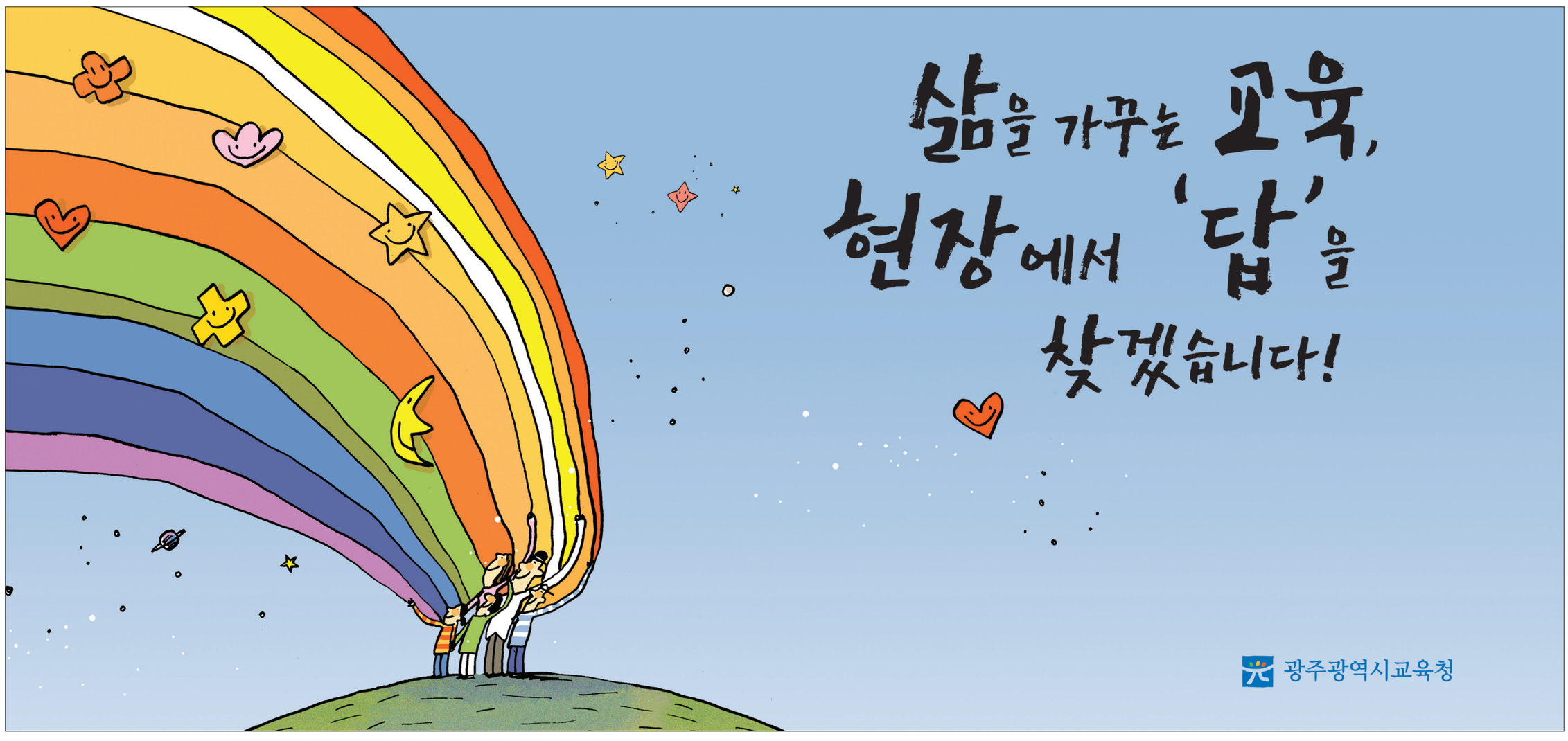
13일 부터 총 5회기 동안 운영 예정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5일 시청 각실에서 초, 중, 고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 월출학부모회 협의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0학년도 월출학부모회 임원진을 선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체되었던 교직원-학부모 다모임 운영, 학부모 교육, 연말 봉사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2020학년도 임원진 선출은 전임 영암고 박미란 월출학부모회장 주제 하에 실시하여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선출하였다.

교직원-학부모 다모임은 학교급별, 규모별로 학부모회 구성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모임 지원단과 함께 원탁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모임 일정은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총 5회기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학부모 교육은 학기별로 진행되며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춘기 학부모되기 교육'은 1학기에 완료하였으며, 2학기에는 23일 독천초·서창초·학산초 병설유치원(연합)을 시작으로 총 10회기에 걸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첫아이 학부모되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